

대전광역시의 정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인식: 대덕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양이*

Resident's Perception on Possibility of Domicili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 Case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duk-gu

Yang-Yi Chang*

요약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정주 가능성과 관련된 주민 인식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덕구 중학생이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정주 도시로서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정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이며, 그 이유로 즐길 거리의 부족, 청소년 시설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미래의 거주 희망 도시로는 서울특별시가 다수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이유로 풍부한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이 선택되었다. 이는 문화 및 여가 요인이 학생들에게 정주 선택의 주요 조건임을 의미한다.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이며, 그 이유로 풍부한 상업시설, 깨끗한 거주환경, 치안 상태 등이 선택되었다. 반면, 불만족에 대해서는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의 부족이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경우, 미래 세대의 정주 가능성 향상을 위해 문화 및 여가의 측면에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대전광역시, 정주, 주민 인식, 대덕구, 중학생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ident's perception on the possibility of domicili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o understand the domiciliating conditions for future generation,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administe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duk-gu.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upplied a negative response for domiciliation in Daejeon; the main reason was a lack of entertainment and youth facilities. Many respondents chose Seoul as the city in which they want to dwell because of abundant entertainment and youth facilities. These are related to culture and leisure, and this factor is regarded as necessary for the students' choice of domiciliated city. In a survey on one's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residential area, the majority of students gave a positive response. Three main reasons were cited for their satisfaction: abundant commercial facilities, a clean environment and public safety. For subjects' reason for dissatisfaction, the lack of entertainment and youth facilities was chosen. Therefore,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domiciliation for future generations, cultural and leisure conditions need to be improv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 Daejeon, Domiciliation, Resident's perception, Daeduk-gu, Middle school students

*대전장대중학교 교사(Teacher, Daejeon Jangdae Middle School, cyy1031@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에도 계속하여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¹⁾ 현대대에게 주어진 환경의 유지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경제·생태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근래에는 이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 거주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도시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여러 기능을 유지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에서는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도시 공간의 유지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도 계속되는 수위도시 혹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인이다(森川, 2015). 또한, 인구가 감소하여 유지 가능성이 취약한 촌락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한계 취락(限界聚落)’에서 파생된 ‘한계도시’라는 용어를 통해 도시의 유지 취약성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日本經濟新聞社 編, 2017). 이는 도시지역도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지속성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인구수의 유지는 도시 경쟁력에 바탕한다. 강정운(2006)에 의하면 도시 경쟁력이 높은 도시는 곧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도시 경쟁력 향상의 기초가 된다. 또한, 도시 간 경쟁에 있어서 ‘매력 도시(attractive city)’ 이미지는 거주자 유입과 주거지 선호에 큰 영향을 준다. 즉, 매력 있는 도시는 인구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의 인구가 안정화하려면 도시민의 정주가 필수적이다. 정주(定住, domiciliation)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나타나는 정주는 다양한 방향에서 정의되고 있다. 김종재·신남수(1991:264)는 와카바야시(若林時郎)의 정의를 인용하여 인간의 삶이 지역성과 결부되어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안정된 심적 결함을 가지고 거주하는 상태를 정주라 하였다. 김상희(2012)는 정주에 대한 중·고령층

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계속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호·남영숙(2017)은 인간이 자신이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주를 ‘한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의지 및 행위로 정리하였다. 정주 공간으로서 도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지가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주 공간으로서 매력을 가진 도시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주 의식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지역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파악하고 거주민들의 의식 분석을 통해 지역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난다. 이희창 등(2005)은 경기도 북부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애착의 측면에서 신뢰, 정주 의지에서는 지역경제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편의, 교육 여건, 지역 경제, 생태 환경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주민 간 협력,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정주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화(2015)는 생활환경 만족도와 도시 위험도를 중심으로 경제 여건과 사회 여건이 서울시민의 정주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정주 의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승아 등(2018)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시책,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평균 여가활동 비용, 여가활동 만족도, 의료기관서비스 만족도, 시민 자부심이 정주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문경주·장수지(2020)는 부산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주관적 계층 의식과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주 의향이 강함을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비율이 높고, 문화 관련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클수록 정주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주 의식 연구는 김호·남영숙(2014; 2017)에 의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지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자는 농촌 지역의 빈집과 관련된 연구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빈집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를

하지 않았지만 무서움이나 상실감으로 표현하여 정주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애착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후자의 대전광역시와 전남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주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앞으로의 기대, 생활 만족과 같은 요인을 꼽았지만,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지역애와 같은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 두 지역의 정주 의식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정주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다르게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홍승애·이재연(2014)은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사회 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이들의 관점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주 요인에 있어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주로 경제와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현시점에 가까울수록 문화나 여가와 관련된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장호창·남영숙(2014)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민의 정주 의식 강화는 미래에 정주지를 선택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언급했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또한,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중시하는 정주 조건을 파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 정책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의 정주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정주 가능성과 관련된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전은 지방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근래에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대전광역시 인구 동향 및 정주 환경 관련 연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은 2013년 1,532,811명을 정점으로 이후 인구가 감소하여 2019년에는 1,474,870명의 인구 규모를 보인다. 대전의 5개 구(區) 중에서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대덕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인구 감소폭이 크며 2000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난다. 2000~2018년 대표표를 보면 2000년 대비 인구 증감률은 유성구(124.81%)²⁾와 서구(2.53%)에서 각각 증가하였으나, 동구 -5.44%, 중구 -5.72%, 대덕구 -22.08%로 대덕구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대덕구의 총인구수는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50,756명 감소하였다.

2000~2019년 시도별 전입 및 전출지를 바탕으로 한 이동자 수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대전 시내 이동자 수는 3,401,388명으로, 이는 타시도 전출자 수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타시도 간 총 이동자 수는 충청남도 407,230명, 경기도 347,978명, 서울특별시 319,233명의 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에는 세종시로의 이동이 타시도 간 이동 중 최다수를 보인다. 순이동자 수로는 세종시로의 이동이 101,557명이며, 서울이 44,087명, 경기도가 32,283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 시내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전의 정주 환경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태명·서수복(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정주 쾌적도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쾌적성은 도시 생활 수준 중 하나로 획일성과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설문 대상은 40~50대가 주를 이루었다. 대전 전체적으로는 자연 환경, 미관심미(시가지, 건축물), 여가 편의시설이 쾌적성의 요인이었다. 반면,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관광자원의 부족도 지적되었다. 대덕구에 대해서는 미관심미, 문화장소(문화 및 역사 장소)가 쾌적성의 요인이며, 의료시설, 여가 편의시설, 시가지 청결 등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호·지남석(2017)은 대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주로 30~50대였다. 총 9개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4.46점)이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3.1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및 고령 인구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분석되었다.

임영언·유근준(2019)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을 사례로 하여 도시쇠퇴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재생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주거지역의 공동화, 골목상권 쇠퇴, 건축물의 노후화가 현저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통합 증대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청소년의 여가실태 분석을 통해 대전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로는 변보기(2005)의 연구가 있다. 학생들은 주말에 컴퓨터 관련 활동과 방송시청을 주로 하며 오락시설과 관람시설을 이용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스포츠 활동, 표현 및 감상 활동,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오락시설과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여가활동과 여가문화의 정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대전에 대하여 쾌적성의 조건,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대덕구의 사례 지역 특성,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덕구는 일반인들에게 미관, 문화장소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례 지역에서는 도시쇠퇴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이 주로 일반인인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 세대의 인식 특성을 파악하여 대전의 정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이다. 조사는 2019년 10-12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대덕구에 위치한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시 조사자는 참여 방법만을 제시하고, 단어에 관련된 질문 등 기본적인 사항에만 답변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설문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전 정주 여부와 현 거주지 만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다.

- (1) 대전 정주 여부와 이유 및 거주 선호 지역
- (2) 미래에 거주하고 싶은 도시와 그 이유
- (3)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
- (4) 현 거주지, 거주기간, 연령, 성별 등 대상자 속성

10월 중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서술 및 서답형 설문지를 제시하여 정주 및 현 거주지 만족 이유를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본집단은 1학년 1개 학급 20명 규모이다. 이와 관련한 집단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의 사례는 표 1과 같다.

응답 사례와 집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주 및 만족도 이유를 선택형 설문조사지로 제작하였으며, 응답

표 1. 1차 서술형 표본 조사 응답 사례

서술형 응답 사례	
대전 정주 (미)희망 이유	(희망)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편리한 곳이 좋음 (미희망) 관광지가 없어서,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볼거리가 적어서,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둔산동과 차이가 심해서,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행사나 콘서트가 개최되지 않아서,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어서
거주 희망 도시 이유	(서울의 경우) 사람이 많고 축제가 많아서, 좋아하는 유투버가 살아서,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 고향이라서, 우리나라의 수도라서, 먹거리와 놀거리가 많아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서, 풍경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행사나 콘서트가 많아서, 신기한 건축물이 많아서, 변화가 많아서
현 거주지 (불)만족 이유	(만족) 태어난 곳이라서, 아파트 단지가 잘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집 주변이 조용해서, 학교와 가까워서, 범죄가 잘 안 일어나서, 편해서, 친구들이 많아서, 평화로워서 (불만족) 놀만한 데가 없어서, 우리 동네만 발전이 느려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쓰레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가로등이 늦게 켜져서, 학생들이 놀 데가 없어서, 운동 시설이 많이 없어서, 대전에서도 외곽이라서, 경치가 별로라서

사례의 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10개의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조사에 참여한 1학년 1개 학급과 새로운 표본집단인 23명 규모의 3학년 1개 학급의 2개 표본집단에 2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통해 각 선택지 선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항목과 대조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은 대상자가 학생들이므로 설문조사지를 읽거나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답변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차 표본집단 대상자들은 서술형인 1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선택형인 2차 설문조사 방식이 참여하기에 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후 동의를 얻은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앞서 제시한 1, 2차 표본집단과 다른 학급을 2개 선정하여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선택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사회·경제: 치안 상태, 일자리, 교육환경
- ② 편의시설: 병원 이용, 상업시설
- ③ 문화·여가: 즐길 거리(공연, 축제 등), 청소년 시설³⁾
- ④ 환경: (깨끗한 혹은 지저분한) 거주환경
- ⑤ 주거 시설: (넓고) 좋은 집
- ⑥ 기타

통계 분석에는 Excel과 SPSS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항목에 따라 대상자 속성과의 교차 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고, 항목별 이유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 거주지 만족도에서는 성별 속성에 따른 더미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이유는 전체 응답수 대비 10%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II. 본론

설문조사 응답은 총 347건이 회수되었는데, 이 중 중복 응답과 미응답과 같이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모두 제외하여, 유의미한 응답은 총 281건(약 81%)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85명, 15세가 82명, 16세가 114명으로 나타났다. 14~15세의 경우 중복응답과 미응답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종적으로 응답수가 감소하였다.

1. 대전광역시의 정주 가능성 조사 결과

대전의 정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종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대전에 정주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며 해당 문항에 대해 이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약 35%는 ‘예’로 응답하였으며, 65%는 ‘아니오’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전에서 계속 거주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와 같은 응답자의 속성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p>0.05$ 에 해당하여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아래 결과는 특정 응답자가 아닌 응답자 전체의 전반적 인식 경향을 보여준다.

대전 정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순위별⁴⁾로 ‘치안, 상업시설, 상업시설’ 순이었다. 합계로 보면⁵⁾ ‘상업시설, 치안, 거주환경, 교육환경, 기타’ 순이며, 앞선 3개가 48%를 차지하여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표 3). 기타의 응답에서는 ‘익숙해서’의

표 2. 대전광역시 정주 가능성 응답 결과 (단위: 명)

	남	여	합계
예	51	46	97
아니오	78	106	184
합계	129	152	281

표 3. 긍정적 정주 의향의 이유

(단위: 명)

	치안	일자리	교육 환경	상업 시설	병원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거주 환경	좋은 집	기타	합계
1순위	32	0	6	10	6	10	2	17	1	13	97
2순위	7	1	13	22	12	7	8	19	5	3	97
3순위	6	2	14	24	8	4	13	5	6	15	97
합계	45	3	33	56	26	21	23	41	12	31	

* 밑줄은 순위별 최다수 응답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합계 기준 10% 이상의 응답을 의미함.

표 4. 부정적 정주 의향의 이유

(단위: 명)

	치안	일자리	교육 환경	상업 시설	병원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거주 환경	좋은 집	기타	합계
1순위	11	9	3	5	1	110	18	14	1	12	184
2순위	3	22	14	13	0	32	70	10	16	4	184
3순위	6	20	9	13	2	12	52	9	38	23	184
합계	20	51	26	31	3	154	140	33	55	39	

* 밑줄은 순위별 최다수 응답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합계 기준 10% 이상의 응답을 의미함.

표 5. 거주 희망 도시

(단위: 명)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세종	기타 국내도시	해외도시	합계
응답수	148	7	44	5	13	2	7	14	17	24	281

표 6. 서울특별시 선택 이유

(단위: 명)

	치안	일자리	교육 환경	상업 시설	병원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거주 환경	좋은 집	기타	합계
1순위	4	3	7	9	8	97	7	5	4	4	148
2순위	1	23	15	28	4	22	36	3	13	3	148
3순위	1	18	10	16	3	10	36	1	45	8	148
합계	6	44	32	53	15	129	79	9	62	15	

* 밑줄은 순위별 최다수 응답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합계 기준 10% 이상의 응답을 의미함.

답변이 18건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대담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전의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동(洞)' 단위에서 서답형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이유를 간략히 적도록 하였다. 49%의 응답자는 현 거주지를 선호 지역으로 선택하였고, 이 중 약 71%가 기타를 선택하여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이 응답에 한하여 거주기간이 길수록 응답자 비율이 높아 거주기간의 장기화가 현 거주지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정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이며, 그 이유로는 순위별로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었으며, 합계에서는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만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표 4).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에 비하여 그 이유가 명확하다. 또한,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 건수의 53%가 즐길 거리(28%)와 청소년 시설(25%)의 부족을 선택하여 대전 정주에 있어 문화 및 여가 관련 요소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래에 본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도시에 거주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148명의 응답자(약 53%)는 서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순위에 해당하지만, 서울과 비교하여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앞서 대전에 정주 의향을 보인 응답자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서울을 거주 희망지로 선택한 이유를 합산한 순서를 보면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좋은 집, 상업시설'이며, 네 가지에 대한 선택 비율의 합산이 73%로 나머지 선택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6). 또한,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의 응답 비율이 47%로 주요 원인에 해당하였다. 즐길 거리의 반응 비율은 1순위 선택지에서는 약 69%, 합계 비율로는 25%를 차지하여 가장 뚜렷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시설은 2, 3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반응 비율은 13%이었다. 좋은 집은 3순위에서 최다수로 선택되었다.

대전을 미래 희망 거주지로 선택한 경우 '거주환경, 치

안'의 이유가 비교적 많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거주환경이나 치안과 관련된 이유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두 도시의 거주환경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었다.

2.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해 만족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매우 만족)까지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만족 및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선택지를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10개의 항목 중에서 '예, 아니오'의 응답에 따라 세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7은 성별에 따른 만족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현 거주지에 대해 만족(187명, 약 6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한다는 응답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약 3.37로 나타나는데, 만족 응답자의 평균은 약 3.83이며, 불만족 응답자의 평균은 약 2.44에 해당한다. 만족도 차이에 성별이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더미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유의확률 $p < 0.05$ 로 유의미하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족도 점수를 보면 남학생은 평균 약 3.90으로 여학생보다 0.15 높게 나타나며, 불만족의 경우에도 남학생이 약 2.50으로 여학생보다 0.07 정도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거주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

표 7.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 여부

(단위: 명)

	남	여	합계
예	94	93	187
아니오	35	59	94
합계	129	152	281

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선행 연구(이희창, 2005; 문경주·장수지, 2020)에서도 보고되는 것을 통해 연령대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와 거주기간 속성을 보면, 거주지의 유의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분산분석 결과 $p > 0.05$ 로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10). 거주지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구 대부분이 서로 간에 거리가 가깝고 응답자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은 응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거주지 만족 및 불만족에 관련된 이유는 전체적인 응답자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A, B, C, 기타'로 분류되었다. A동은 응답자 중 172명이 거주하여 최다수 거주 지구이며, B는 64명, C는 27명, 기타 동 지역이 18명에 해당한다. 응답자가 다수 거주하는 A와 B동의 기본 속성은 다음과 같다. A동은 2018년 기준 인구 약 2.7만 명이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곳이며 어린이 공원 5, 체육공원 1, 테니스장 4개소의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통시장 1개소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큰 규모의 병원이 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가 위치한다. 학교는 초등학교 3, 중학교 1개소, 공립 도서관 1개소가 입지해 있다. B동은 2018년 기준 인구 약 2만 명으로 197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곳이며, A동에 비하여 다소 개발이 오래된 곳이다. 주변에 어린이 공원 6, 근린공원이 2개소 위치하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각각 1개소 위치하며 수련관과 더불어 역사시설이 위치한다.

거주지별 만족도 평균은 A동이 약 3.47로 가장 높으며, C, B 순으로 나타난다. A동은 만족 및 불만족 응답자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불만족 응답자의 평균은 B동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표 8. 현 거주지에 대한 남녀 학생의 만족도 차이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성별	상수	3.528	.085	41.312	.000
	더미성별변수	-.299	.116	-.152	-.2575

*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9. 거주지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5,248	3	1,749	1,839	.140
집단내	263,460	277	.951		
전체	268,709	280			

*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0. 거주기간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637	2	.319	.330	.719
집단내	268,071	278	.964		
전체	268,709	280			

*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1. 거주지별 만족도 평균

	A	B	C
전체평균	3.47	3.18	3.23
만족 응답자	3.86	3.76	3.07
불만족 응답자	3.12	2.54	2.85

* 5점 만점.

1~2명만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되므로 만족도 평균에서는 제외하였다(표 11).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의 이유는 표 12와 같다. 순위

별로는 ‘치안, 상업시설, 상업시설’이며, 합계에서는 ‘상업시설, 거주환경, 치안, 교육환경, 병원’의 이유가 나타났다. 주요 요인은 상업시설, 거주환경, 치안이며 세 가지 요인이 전체의 약 51%를 차지한다. 상업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은 “전통시장이 가격이 저렴해서 간식 먹으러 자주 간다, 주변 마트를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대전 복합 터미널이 가까워서 좋다,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보낸다, 옷을 사거나 쇼핑을 하기도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에서 대전 복합 터미널은 버스를 이용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자동차를 이용하여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 평소 여가 시간에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유 시간이 있으면 가까운 복합 상업 지구를 이용한다는 응답들이 다수 있었다. 이런 경우 현 거주지로부터 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한 것에 기반하여 상업 지구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거주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길에 쓰레기가 적다, 나무가 많아서 여름에 그늘이 많다, 사람이 많지 않아 복잡하지 않다, 조용한 동네이다”의 응답이 있었다. 치안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 같다, 범죄가 적은 것 같다, 경찰서가 가깝다” 등과 같이 본인이 느낀 바에 기반한 응답이 많았다.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는 표 13과 같으며

표 12. 현재 거주지 만족 이유

(단위: 명)

	치안	일자리	교육환경	상업시설	병원	즐길거리	청소년시설	거주환경	좋은 집	기타	합계
1순위	<u>54</u>	0	13	16	20	12	6	49	4	13	187
2순위	14	2	30	<u>50</u>	26	9	11	35	4	6	187
3순위	16	3	33	<u>41</u>	20	9	16	13	15	21	187
합계	84	5	76	107	66	30	33	97	23	40	

* 밑줄은 순위별 최다수 응답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합계 기준 10% 이상의 응답을 의미함.

표 13. 현재 거주지 불만족 이유

(단위: 명)

	치안	일자리	교육환경	상업시설	병원	즐길거리	청소년시설	거주환경	좋은 집	기타	합계
1순위	8	3	1	5	4	<u>45</u>	11	12	1	4	94
2순위	0	7	10	8	0	19	<u>29</u>	7	11	3	94
3순위	4	8	8	8	1	11	<u>27</u>	3	17	7	94
합계	12	18	19	21	5	75	67	22	29	14	

* 밑줄은 순위별로 최다수 응답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합계에서 10% 이상의 응답을 의미함.

불만족 응답자는 총 94명(약 33%)이다. 불만족의 이유는 만족 요인에 비교하여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순위별로는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며, 합계로는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좋은 집의 순으로 나타난다.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의 응답 비율은 약 50%이며, 앞서 대전 정주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이유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즐길 거리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할 게 없다, 터미널에 가서 영화 보는 정도이다, 연예인들이 오거나 하는 행사가 없다, 도시 안에 있는 시골 같다, 즐겁게 놀고 싶은데 그럴 만한 데가 없다”의 응답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행사, 축제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평소에 시험 끝나면 PC방, 코인 노래방이나 오락하러 가는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 가끔 카페에 가지만 어른들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우리 동네에는 어른들이 저녁에 술을 드시거나 하는 데는 많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다, 다른 지역처럼 △△거리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많은데 우리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면 평소 거주지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즐길 거리나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인터뷰에서는 현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대전 지역 전체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쉽게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3. 대전광역시 정주 요인 및 관련 인터뷰 내용

표 14는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대전의 정주 가능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35%가 긍정, 65%

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상업시설, 치안 상태, 깨끗한 거주환경’과 같이 편의시설과 사회·환경적인 측면이 대전 지역의 정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정주에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의 이유가 명료하게 나타났다.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은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요인으로, 청소년기의 응답자들에게는 문화 및 여가 시설 관련 요인이 정주를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 요소임을 확인했다.

미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거주지는 ‘서울’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약 53%(148명)이며, 대전 정주에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의 약 65%가 서울을 선택하였다. 서울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 ‘풍부한 즐길 거리, 청소년 시설, 넓고 좋은 집, 풍부한 상업시설이 있었다. 미래 거주지 선택에서도 문화 및 여가와 관련 요인이 주요 조건이며, 더불어 주거 시설, 편의시설 또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대전에서의 문화 및 여가 요인의 부족 인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서울을 정주 희망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인구 이동과 관련된 통계에서는 대전 시내에서의 이동이 다수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거주 희망 도시로 대전보다 서울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인구 이동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인구 유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 정주 및 현 거주지의 만족 이유에서도 ‘풍부한 상업시설, 깨끗한 거주환경, 치안 상태’는 다수 선택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만족 선택에서도 낮은 수치로 집계되어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도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표 14. 설문조사 주요 결과 종합

	응답	이유	거주 희망 도시
대전 정주	긍정 (35%)	상업시설(19%), 치안(15%), 거주환경(14%)	서울(53%) 이유: 즐길 거리(29%), 청소년 시설(18%), 좋은 집(14%), 상업시설(12%)
	부정 (65%)	즐길 거리(28%), 청소년 시설(25%)	
거주지 만족	긍정 (67%)	상업시설(19%), 거주환경(17%), 치안(15%)	
	부정 (33%)	즐길 거리(27%), 청소년 시설(24%)	

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들의 정주를 위한 조건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인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전의 여가편의시설은 문화 및 여가 관련 요인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나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요인에 해당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주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나 차이점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다수가 대전 지역의 문화 및 여가 부분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래는 관련 인터뷰의 사례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전하면 딱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꿈돌이 동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라서... 특색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축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은 확실히 대전보다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면 직업을 가지거나 할 때 기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사례 1)

“대전에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일단 수도권을 보면 문화 시설도 많고 우리 같은 청소년 나이대의 아이들이 할 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이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사례 2)

“대전은 그래도 과학 기술의 도시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행사나 이런 걸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올 것 같고요. 저희도 뭔가 즐길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인터뷰 사례 3)

위는 인터뷰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집단 인터뷰에서도 응답자들은 대전에 대해 뚜렷하게 떠오르는 지역 이미지가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행사나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대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는 문화 및 여가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전의 문화 및 여가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으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III. 결론 및 과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 도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인구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인구감소는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도시의 여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정주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 대도시 중 하나인 대전의 정주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대전은 지방 대도시이지만, 2013년 이후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과반수는 대전 정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서울을 미래의 거주지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인구 이동 형태는 대전 시내 이동이 많은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응답 결과는 서울로의 인구 유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대전 지역에 즐길 거리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현 거주지에 대해서 과반수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풍부한 상업시설, 깨끗한 거주환경, 치안 상태가 이유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전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상대적으로 문화 및 여가의 측면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문화 및 여가 확충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설

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신체 활동이 가능하며 건전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행사 및 축제는 문화적 충족감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및 여가의 경험은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정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도시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동력원의 하나가 될 것이며,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덕구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들의 정주 가능성과 이를 위한 조건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에서의 사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 세대의 전반적인 정주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이러한 측면에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註

- 1) "What is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is based on a simple principle: Everything that we need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depend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our natural environment. To pursue sustainability is to create and maint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s and nature can exist in productive harmony to support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로 규정한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정의에 바탕한다.
- 2) 2000년 이후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지구가 다수 분포하는 것에 기인한다.
- 3)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5986호,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서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

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순위별로 합계하여 비율을 나타낸다. 즉, 긍정적 응답의 경우 응답자수가 97명이므로 (선택자수/97)×100으로 계산된다.
- 5) 전체 합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즉, 긍정적 응답의 경우 응답자수가 97명이며, 선택지는 3번 선택하므로 (선택자수/97×3)×100으로 계산된다.

참고문헌

강정은, 2006,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이미지 마케팅" 지역발전연구, 6(1), 187-207.

김근한·이길상·김오석·최희선, 2019, "용도지역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도시지역 확장 예측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3), 517-527.

김상희, 2012, "중고령층의 지역 내 계속거주 지향 군집의 특성 분석: 경남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연례논문집, 14(2), 47-57.

김종재·신남수, 1991, "도시민의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I: Community 의식과 정주 의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261-268.

김태명·서수복, 2012, "대전광역시 정주쾌적도 분석을 통한 대전시 발전전략 모색" 사회과학연구, 21, 1-26.

김호·남영숙, 2014, "농촌지역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빈집에 대한 인식이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환경교육, 29(3), 348-361.

김호·남영숙, 2017,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지역 환경 인식이 정주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과 전남(나주, 영광, 영암)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0(4), 410-428.

문경주·장수지, 2020, "다층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향도부산 39, 413-448.

문준선·유보영, 2010, "청소년 시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8(3), 59-67.

변보기, 2005, "청소년 여가실태 및 여가장애수준에 관한 연구: 대전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0(1), 1-33.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5986호,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
- 이두현, 2019, “지역사회(마을) 기반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 한국지리학회지, 8(3), 349-362.
- 이승아·임규채·이재필, 2018, “대구시민의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구경북연구, 17(2), 41-53.
- 이장현, 2010, “평택시 청소년 지역인식 및 태도에 관한 고찰”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6, 83-104.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5, “지역주민의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8.
- 임미희, 2015,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定住)의식에 관하여” 부동산학보, 62, 106-120.
- 임병호·지남석, 2017,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1(4), 357-367.
- 임영언·유근준, 2019,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도시쇠퇴의 공간지리적 특성과 도시재생의 정책적 추진방향 고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의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9(2), 13-28.
- 장양이, 2013, “일본 센다이(仙台)시 교외 지역 주민들의 거주에 대한 인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129-139.
- 장양이, 2018, “중국 천진에 대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지역 인식: 천진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1), 15-28.
- 장호창·남영숙, 2014, “학습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학습자 교육환경 분석 연구” 환경교육, 27(1), 31-50.
- 정성훈, 2011,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 현황”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53-60.
- 조성옥, 2017,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에 대한 원인 고찰: 광주 및 대전 광역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2, 275-289.
- 홍승애·이재연, 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森川洋, 2015, “人口減少時代の地域政策” 経済地理学年報, 61(3), 202-218.
- 日本経済新聞社 編, 2017, 「限界都市: あなたの街が蝕まれる」,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o.dict.naver.com>(2020년 4월 12일 최종 접속)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2020년 4월 12일 최종 접속)
- 통계청, <http://kostat.go.kr>(2020년 4월 12일 최종 접속)
-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s://www.epa.gov>(2020년 4월 12일 최종 접속)
- 교신 : 장양이, 34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26, 대전장대중학교(이메일: cyy1031@hanmail.net)
- Correspondence : Yang-Yi Chang, 34406, 26 Munhwa-won-ro, Yuseong-gu, Daejeon, Korea, Daejeon Jangdae Middle School (Email: cyy1031@hanmail.net)

투고접수일: 2020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14일